



향후 10년간 시멘트 산업의 전망



송 종 택
단국대학교

song8253@anseo.dankook.ac.kr

우리 나라 시멘트 산업은 1960년대 이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내 건축·토목산업 발전은 물론 고도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시멘트 및 관련업체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업체들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해외자본 유입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업체의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시멘트 산업의 전망"을 예측하여 보면, 먼저 수요면의 경우, 최근 시멘트 수요는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2000년도 국내 수요가 4,800여만톤, 2001년도에는 5,070여만톤으로 국내 최대 수요가 일어났던 1997년의 82%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1인당 시멘트 소비량 및 시멘트 축적량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시멘트 산업은 이미 성숙기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즉, 1인당 소비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1톤을 초과하는 국가는 10여개국에 불과하다. 1997년 통계를 토대로 할 때, 선진국인 미국은 0.36톤이며, 일본은 0.63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멘트 수요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시멘트 대량 소비국으로

서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기술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현재 시멘트 업계의 당면과제로서는 생산성 향상, 시멘트의 다품종화 및 시공방법의 개발, 폐기물의 활용, KS규격의 국제화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가까운 장래, 시멘트 산업에서 생산성은 선진 경영기법과 공정기술을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해갈 것이며, 특수 시멘트 등 새로운 시멘트 재료들이 점점 개발되고 상품화되어 다양한 환경과 특성을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시멘트 및 콘크리트 관련시험 규격을 국제 표준화하여 국내 KS규격도 관세 무역 및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국제 표준이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멘트 산업이 지구 환경보전에 공헌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의 확립이다. 시멘트업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산업폐기물은 물론 도시 소각회, 하수 오니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